

## The Effect of Parent Attachment in Adolescent on Internet Addiction Tendency: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Seohyeon Kim<sup>†</sup>

Yong-In Mental Hospital

Jungkyu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internet addiction tendency. Inventory of parent attachment, internet addiction scale, and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scale were administered to 500 stud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 in Seoul and Gyeonggi-do and data from 422 student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parent attachment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whereas parent attachment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internet addiction tendency.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internet addiction tendency. Finding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icated that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fully mediates the relation of parent attachment and internet addiction tendency. This study suggests that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is an important factor in relation of parent attachment and internet addiction tendency. The results impl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evaluate and intervene in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in prevention and treatment of internet addiction.

*Keywords: attachment, internet addiction tendency, emotional regulation, adolescent, mediating effect*

---

\* This paper is taken in part from the master's thesis of the first author,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 Correspondence concerning this article should be addressed to Seohyeon Kim, Yong-In Mental Hospital, 940, Jungbu-dae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Korea,  
Tel: 031-288-0266, E-mail: psy\_shkim@naver.com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의 과도한 이용으로 학업, 직업,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를 말한다(Young, 1996). 인터넷 중독에 대한 관심은 1995년 이후로 시작되었으며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Goldberg(1996)는 개념적인 진단 준거를 만들어 병리적 강박적 인터넷 사용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Young(1996)은 DSM-IV의 ‘병적 도박’의 진단 기준을 원용하여 인터넷에 대한 강박적인 사고, 내성과 금단, 의도한 것 이상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 지속적인 욕구, 다른 활동에서의 흥미 감소,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의 무시 등을 인터넷 중독의 진단 기준으로 삼았다. Young은 인터넷 중독은 자기조절의 장애이며 DSM-IV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충동조절장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새로이 개정된 DSM-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서 인터넷 중독은 정식 진단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인터넷 게임 장애(Internet Gaming Disorder)’라는 이름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진단적 상태>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확산되고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며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에 따라 금단, 내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상생활 기능 장애를 경험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4년 한국 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에 따르면, 만 5세-54세 인터넷 이용자 중,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6.9%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아동 5.6%, 청소년 12.5%, 성인 5.8%로, 청소년의 중독 위험군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고되었다(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and Promotion, 2014). 또한, 2011년 이후 유아동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11)7.9% → (‘12) 7.3% → (‘13) 6.4% → (‘14) 5.6%, 성인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11) 6.8% → (‘12) 6.0% → (‘13) 5.9% → (‘14) 5.8%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청소년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11) 10.4% → (‘12) 10.7% → (‘13) 11.7% → (‘14) 12.5%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다.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징으로 자기 통제력의 미숙, 감각적 행동, 사회 내에서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 충동적 성향 등이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징에 따른 욕구를 인터넷을 사용하여 해결함으로써 중독증으로 나아가게 된다(Kim, 2012).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을 경험하는 경우,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 현실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업 부진, 대인 관계회피와 같은 부정적인 문제가 나타난다(Young, 1996).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 경향군은 비교집단과 비교했을 때, 우울 성향이 더 높고 외부의 부정적인 평가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며 또래 관계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Oh, Jo, Hong & Moon, 2001). 또한 인터넷 중독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우울뿐만 아니라 자살사고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Kim, Choi & Yoo, 2010; Ryu, Choi, Seo & Nam, 2004). 인터넷 중독은 학업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Kim, Park, Tak, Kim & Oh, 2013; Lee & Jeon, 2015) 학업적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주변에 수용 받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은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Jo, 2013). 이렇듯 다수의 선행 연구들에서 다양한 심리적 변인과 인터넷 중독의 관련성이 검증되어 오고 있다.

인터넷 중독의 원인으로 부모와의 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 태도 등과 같은 가족관련 변인들이 빈번히 연구되어 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애착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자녀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경우 인터넷 게임 중독 정도가 낮았으며 인터넷 중독 고위험 집단에서는 부모-자녀 애착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Kim, Son, Yang, Cho & Lee, 2007). 애착 유형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애착 불안은 인터넷 중독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Lee & Hong, 2011).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Yoo(2009)의 연구에서는 애착유형에 따라 중독 성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애착이 안정적인 수록 중독성향이 낮게 나타났으며 애착이 불안정할수록 중독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인터넷 중독은 부모 애착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낮은 부모 애착 수준은 인터넷 중독 취약성을 높일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다만, 상담 장면에서 영·유아기에 형성된 애착을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은 매우 까다로우며 구체적인 목표 설정도 어렵다. 따라서 부모 애착이 개인의 어떠한 심리적 특성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지 밝혀내는 것이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적 개입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애착과 인터넷 중독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으며 어떤 개인 내 특성이 애착과 인터넷 중독을 매개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불어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 애착과 모 애착을 분류하지 않고 있는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성과 여성 모두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약화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기존의 선행 연구 (Paterson & Pryor, 1994)를 고려했을 때, 부모 애착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인터넷 중독은 심리적 불편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선택하게 되는 행위로 이해해볼 수 있다. Tice, Bratslavsky와 Baumeister(2001)는 실험연구를 통해 정서적 고통을 경험했을 때, 장기적인 자기조절보다는 순간의 정서 조절을 우위에 두게 됨으로써 자기 파괴적 행동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러한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는 폭식이나 약물 사용, 인터넷 중독이 포함될 수 있다. Hopley와 Nicki(2010) 역시 우울감이나 문제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 게임이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상의 결과는 정서조절과 인터넷 중독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시사한다.

정서조절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하지만 Gottman과 Katz(1989)는 정서조절을 인식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분노의 조절, 절제, 인내심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더불어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1) 강렬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과 연관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는 능력, (2) 스스로 진정하는 능력, (3) 주의집중을 하기 위해 감정 상태를 사용하는 능력, (4)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감정, 생각, 행동을 조화시키는 능력, (5) 타인의 느낌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감정을 사용하는 능력, (6) 사회와 문화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정서를 표출하는 능력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부모와의 애착이 자녀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정서조절은 애착체

계의 기능중 하나로 여겨진다(Bowlby, 1988). Sroufe와 Waters(1977)는 애착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아동이 느끼는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애착이론이 바로 정서조절이론이라고 간주하기도 하였다. 애착이 정서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는데, 학령기 아동의 애착과 정서에 대한 연구 결과, 안정된 애착의 아동들은 코르티솔 수준이 더 낮았는데 이는 실험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낮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초기에는 크게 놀랐으나 이러한 반응이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Borelli et al., 2010). 안정 애착된 개인은 상황에 대한 요구에 반응하여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표현하는데 유연하며(Kobak & Sceery, 1988; Sroufe, 2005) 안정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불안정애착 유형의 사람들보다 부정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Jeong, 2003).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인터넷 중독 성향은 정서조절능력의 결함, 정서조절 실패로 인한 결과이며 정서조절능력은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적 변인인 애착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관계에서 개인 변인인 정서조절능력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인터넷 중독 성향,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인터넷 중독 성향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탐색할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추후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 방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애착, 인터넷 중독 성향, 정서조절능력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가?

둘째,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은 부모 애착과 인터넷 중독 성향의 관계에서 매개 변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 중 480부가 수거되었으며 그 중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68부를 제외한 422부가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 측정 도구

#### 부모 애착.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모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Armsden과 Greenberg(1987)가 10-20세를 대상으로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 개정본(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Revised; IPPA-R)을 Ok(1997)이 번안 및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Ok(1997)은 부모 애착, 또래 애착척도로 구성된 원 척도를 수정하여 부와 모의 애착을 분리시켜 측정할 수 있는 부, 모, 또래 애착 척도 개정본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 애착 척도를 제외하고 부모 애착 척도를 사용하였다. 애착 척도(IPPA-R)은 부와 모 각각의 애착을 점검하

는데 있어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와 모에 대한 애착 척도는 동일문항으로 각각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차원별 문항 수는 신뢰감 10문항, 의사소통 9문항, 소외감 6문항이다. 문항 형식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평정되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 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되었음을 의미한다. Ok(1997)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 )는 부 애착은 .93, 모 애착은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 애착은 .92, 모 애착은 .91로 나타났다.

#### 인터넷 중독 성향.

청소년의 인터넷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Young(1996)이 온라인중독센터에서 만든 검사를 Kim, Lee와 Oh(2003)가 청소년용으로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인터넷이나 통신사용과 관련된 생활, 대인관계, 행동문제, 정서문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의존성과 내성, 심리적 및 신체적 급단 증상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이며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100점이다. Young(1998)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20-49점은 평균 이용자이며 50-79점일 경우, 인터넷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있는 중독 성향자로, 80점 이상은 중독군에 해당한다. Kim, Lee와 Oh(2003)의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 )는 .90,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 )는 .90으로 나타났다.

#### 정서조절능력.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Kim(1998)이 제작한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 척도를 Son(2007)이 구성요소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서로 반대의미를 가진 한 쌍의 진술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Oh(2010)가 하나의 문항으로 정리, 수정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 정서 인식 및 표현,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 자기정서이용, 타인 정서 인식 및 배려, 대인관계 등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0문항이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5단계 Likert형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1-5점을 부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Oh(2010)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 )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 )는 .89로 나타났다.

#### 인구통계학적 정보.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변인과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학교 및 학년, 연령, 성별, 인터넷사용시간, 인터넷 사용용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 분석 방법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인터넷 사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에 대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용된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에 위하여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 )를 구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측정 변인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이변량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인터넷 중독 성향 변인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 방정식 모형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단일평가 방법은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고 수정지수MI(Modification Index)와 CR(Critical Ratio) 값을 고려하여 최종 모형을 확정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경쟁모형 방법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형을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형태로 2가지 제시하고 서로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여 가장 해석하기 용이하고 자료와 잘 맞는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Bae, 2007).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연구의 자료와 목적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경로를 포함한 부분 매개 모형을 연구 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애착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외한 완전 매개 모형을 경쟁 모형으로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부모 애착과 인터넷 중독 성향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0 통계 프로그램과 AMOS 18.0.0을 사용하였다.

## 결 과

### 인구통계학적 정보

총 422명의 자기보고검사가 분석에 활용되었는데, 이 중, 남학생 240명(56.9%), 여학생 182명(43.1%)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중학생은 215명(50.9%), 고등학생은 207명(49.1%)이다. 인

터넷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의 경우에 인터넷 게임(73.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여학생의 경우 미니홈피, 블로그(56.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유형이 다를 수 있었다.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1시간-2시간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애착과 매개변수인 정서조절능력, 종속변수인 인터넷 중독 성향의 기술통계량은 Table 2와 같다. 애착 평균은 175.73, 표준편차는 29.38이었으며 정서조절능력의 평균은 175.14, 표준편차는 20.08이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중독성향의 평균은 36.12, 표준편차는 11.80으로 나타났다. Young(1998)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20-49점은 평균 이용자이며 50-79점일 경우, 인터넷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있는 중독 성향자로, 80점 이상은 중독군에 해당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86.7%가 평균 이용자, 13.1%가 중독 성향자, 중독군은 0.2%였다. 2014년 청소년의 중독 위험군 12.5%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and Promotion, 2014).

###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부, 모 애착과 정서조절능력, 인터넷 중독 성향 간의 상호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총 애착은 인터넷 중독 성향과 보통 수준의 부적 상관( $r = -.22, p < .01$ )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Male (N=240)		Female (N=182)		
	N	%	N	%	
Middle school student	112	52.1	103	47.9	
High school student	128	61.8	79	38.2	
Purpose of internet usage	E-mail	18	7.5	19	10.4
	chatting, messenger	67	28	58	31.9
	SNS, blog	61	25.5	103	56.6
	study	27	11.3	35	19.2
	web searching	81	33.9	87	47.8
	internet shopping	24	10	58	31.9
	game	176	73.6	29	15.9
	nasty sites	16	6.7	4	2.2
	other	7	2.9	5	2.7
Time of internet usage per day	less than 30 minutes	23	9.6	33	18.1
	30 minutes - 1 hour	55	22.9	49	26.9
	1 hour - 2 hours	92	38.3	57	31.3
	2 hours - 3 hours	46	19.2	28	15.4
	3 hours - 5 hours	21	8.8	10	5.5
	more than 5hours	3	1.3	5	2.7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variables	M	SD	Range of measuring points
Attachment	175.73	29.38	88-242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175.14	20.08	116-238
Internet Addiction Tendency	36.12	11.80	20-84

보였다. 때, 부 애착과 인터넷 중독 성향은 약한 수준의 부적 상관( $r=-.18, p<.01$ ), 모 애착과 인터넷 중독 성향은 보통 수준의 부적 상관 ( $r=-.22, p<.01$ )을 가지고 있었다. 총 애착과 정서조절능력 간에는 비교적 강한 수준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r=.42, p<.01$ ) 어머니와 아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Study Variables

	1	1-1	1-2	2	3	3-1	3-2	3-3	3-4	3-5
1. Attachment	1									
1-1. father attachment	.94**	1								
1-2. mother attachment	.94**	.74**	1							
2. Internet Addiction Tendency	-.22**	-.18**	-.22**	1						
3.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42**	.38**	.40**	-.26**	1					
3-1. Self-Awareness	.27**	.24**	.27**	-.12*	.74**	1				
3-2. Managing Emotions	.33**	.31**	.32**	-.19**	.67**	.35**	1			
3-3. Self-Motivation	.33**	.31**	.31**	-.25**	.76**	.45**	.47**	1		
3-4. Empathy	.27**	.24**	.28**	-.17**	.75**	.44**	.41**	.42**	1	
3-5. Handling Relationships	.31**	.29**	.30**	-.19**	.71**	.46**	.24**	.37**	.48**	1

부지 애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을 때, 부 애착과 모 애착 각각은 정서조절능력과 보통 수준의 정적인 상관( $r=.38$ ,  $r=.40$ ,  $p<.01$ )을 보였다. 정서조절능력은 인터넷 중독 성향과 보통 수준의 부적 상관( $r=-.26$ ,  $p<.01$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로는 정서조절능력의 5개 하위 요인 모두 인터넷 중독 성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그 중에서도 ‘자기 정서 이용’ 요인( $r=-.25$ ,  $p<.01$ )이 인터넷 중독 성향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애착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검증

애착과 인터넷 중독 성향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이 부분 매개하는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완전 매개하는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두 모형을 비교하여 자료와 잘 맞는 모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부분 매개 모형)과 경쟁 모형(완전 매개 모형)은 Figure 1과 Figure 2에 제시되어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특정 모형이 실제 자료와 부합되는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chi^2$ 를 구할 수 있지만  $\chi^2$  검증은 표본 크기에 비교적 민감하여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모형을 쉽게 기각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hi^2$ 와 함께 Hong(2000)이 제안한 적합도 지수인 GFI (Goodness of Fit), CFI(Comparative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두 모형의  $\chi^2$ , 자유도, 적합도 지수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RMSEA가 .074로 괜찮은 적합도를 보인다 할 수 있으며 GFI, CFI, TLI 모두 .90이상으로 양호한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모형은 각기 다른 모형으로 두 모형을 모두 채택할 수 없으며, 두 모형 중 어떤 모형이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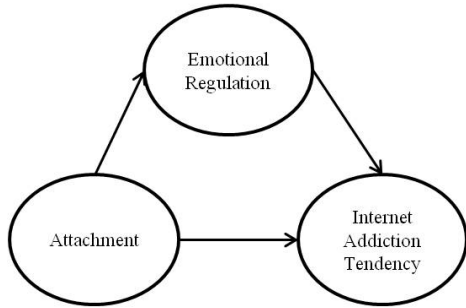


Figure 1. Partial mediation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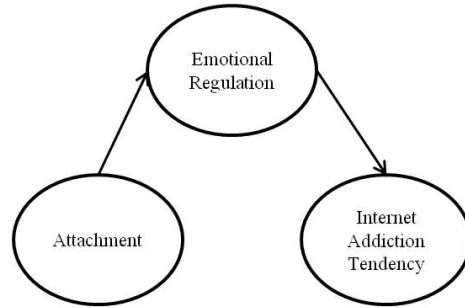


Figure 2. Full mediation model

Table 4  
Model Fit

	$\chi^2$	df	P	GFI	CFI	TLI	RMSEA
Full Mediation Model	109.42	33	.000	.951	.950	.932	.074
Partial Mediation Model	106.32	32	.000	.953	.951	.932	.074

적절한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두 모형의 값과 자유도를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자유도 차는 1이며 값의 차이는 3.101로 두 모형은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chi^2 = 3.101$ ,  $df = 1$ ,  $p < .05$ ). 따라서 더 간단한 모형 즉, 자유도가 더 큰 모형인 경쟁모형을 채택하였다.

표준화 경로계수

모형 적합도가 검증된 경쟁모형을 대상으로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경로계수들을 살펴본 결과, 애착이 정서조절능력으로 가는 경로와 정서조절능력이 인터

Table 5  
Model Path Coefficients

Path	Unstandardized $\beta$	S.E.	Standardized $\beta$	C.R.
Attachment →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1.35	.017	.509	7.847***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 Internet Addiction Tendency	-2.30	.046	-.313	-5.014***

Note. S.E. = Standard Error; C.R. = Critical Ratio.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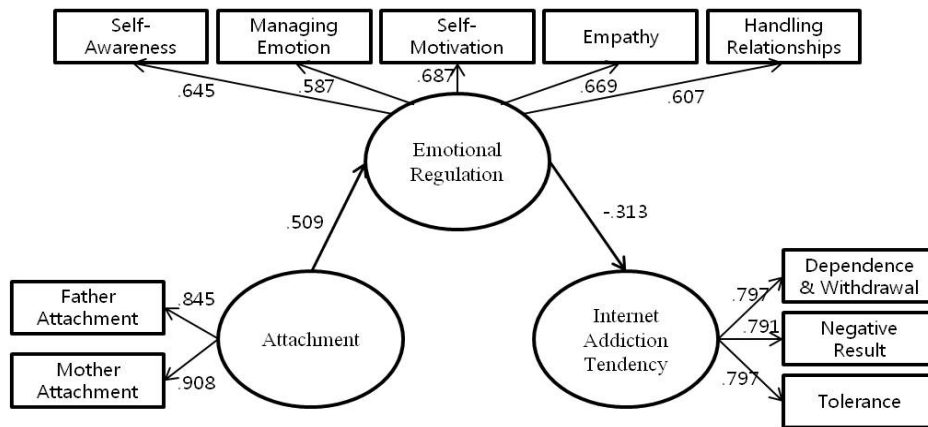


Figure 3.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of Variables

넷 중독 성향으로 가는 경로 모두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서조절능력이 애착과 인터넷 중독 성향 사이를 완전 매개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Figure 3에 경로 계수를 표시하였다. 부모 애착에서 정서조절 능력으로 가는 직접 효과는  $\beta=.509(p<.001)$ , 정서조절능력에서 인터넷 중독 성향으로 가는 직접 효과는  $\beta=-.313(p<.001)$ 로 나타났다.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다( $Z=-42.31, p<.001$ ).

###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와의 애착을 설정하고 이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 소재의

중·고등학교 남, 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에는 총 422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문제인 부모와의 애착, 정서조절능력과 인터넷 중독 성향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애착은 인터넷 중독과 부적인 관련성( $r=-.22$ )이 있었으며 정서조절능력과는 정적인 관련성( $r=.42$ )이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애착을 분류하여 살펴보았을 때도 부 애착과 인터넷 중독 성향( $r=-.18$ ), 모 애착과 인터넷 중독 성향( $r=-.22$ )은 부적인 관련성이 있었으며 부 애착과 정서조절능력( $r=.38$ ), 모 애착과 정서조절능력( $r=.40$ )은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정서조절능력은 인터넷 중독 성향과 부적인 관련성( $r=-.26$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애착 수준이 인터넷 중독과 상관이라는 많은 연구(Choi, 2003; Jung, 2010; Kim, 2005)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낮은 정서조절능력을 보였다는 Lee(2009)의 연구 결과와 게임 중독 집단이 비

중독 집단에 비해 낮은 정서지능을 보였다는 Ahn(2003)과 Jung(200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이 부모와의 애착 가운데 어머니와의 애착과의 관련성만 유의미하다는 Lee, Lee와 Jang(2013)의 연구 결과와는 불일치하는 결과인데, 대학생의 경우, 부 애착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애착 모두가 인터넷 중독 성향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서조절능력의 모든 하위 요인은 모두 인터넷 중독 성향과 부적의 관련성을 나타내었으며 그 중에서도 ‘자기 정서 이용’ 요인이 가장 큰 부적 관련성( $r=-.25$ )을 보였다. Goleman(1995)은 정서지능을 자기 정서의 인식, 정서의 조절과 통제, 잠재능력의 개발을 위한 동기화, 타인과의 감정이입, 대인관계 능력 등의 5가지 요소로 설명하였으며 이 중, 잠재능력의 개발을 위한 동기화가 자기 정서 이용에 해당한다. Goleman(1995)은 동기화를 부지런하고 끈기 있게 한 가지 과제에 몰입하여 낙담하지 않고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도 용기를 잃지 않고 일을 추진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만족감을 지연시키거나 충동을 억제할 줄 아는 능력은 모든 성취에 있어서 기초가 되며, 자아 몰입의 경지에서 위대한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자기 정서 이용 능력과 인터넷 중독 성향과의 관련성이 가장 크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교육 및 상담적 개입에서 정서조절능력 중에서도 특히 자기 정서 이용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전략이 도입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인 부모와의 애착과 인터넷 중독 성향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핀 결과, 정서조절능력은 부모와

의 애착과 인터넷 중독 성향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따라서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정서조절능력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결과는 애착이 간접 경로를 통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었다는 Lee와 Hong(2011), Lee, Lee와 Jang(2013), Mok(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부모 애착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다양한 매개 변인이 있음이 시사되며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매개 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부모 애착이 청소년의 게임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No(2008)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는데, No(2008)의 연구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에 초점을 맞추어 졌으나 본 연구는 게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터넷 중독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 역시 달랐다. 또한 구조방정식을 실시한 본 연구와는 달리 중다회기분석을 실시하는 등 분석 방법의 차이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을 포괄적으로 개념화하여 연구하였으나 인터넷 중독에는 사이버 섹스 중독, 가상 관계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과도한 정보 검색, 컴퓨터 중독과 같이 다양한 하위 유형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Young, 1996), 추후에는 중독의 하위 유형별로 부모 애착이 미치는 영향력과 정서조절능력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겠으며 분석 방법을 일치시킨 후 부모 애착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를 재검증해야 할 것이다.

정서조절능력이 부모 애착과 인터넷 중독 성향간의 경로에서 완전 매개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 중독의 치료에서 정서조절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

한다.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적 개입에 있어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 및 표현하고 조절하며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정서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치료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인지행동 모델에 근거하여 인지행동치료의 치료효과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Keum, Jung, & Shin, 2015) 정서적 측면은 간과되어 왔다. 실제로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과 같은 중독성 행동에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개입에 있어 인지 행동적 접근 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Lee(2013)의 연구에서, 체험 치료적 개입이 사회적 배제 경험으로 인한 내담자의 부정적인 정서 변화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 알아차림과 수용 증진, 적절한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와 학습에 중점을 둔 계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살펴본 Lee와 Kim(2013)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체험적 정서 조절방략이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정서 인식, 정서 조절, 변화 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Kim(2015)의 연구에서도 정서 유발 시나리오를 활용한 개입이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의 정서 인식과 정서 조절, 인터넷 사용 조절 변화 동기에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정서 인식 및 표현, 조절, 동기화와 같은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치료적 개입의 효

과성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특히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서조절능력의 향상을 위한 치료적 개입은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청소년의 특성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유·아동, 성인 인터넷 중독에는 연구의 결과를 적용 할 수 없겠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에는 청소년의 사회 경제적 요인에 대한 질문이 없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요소를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하위 유형에 대한 구분 없이 포괄적인 인터넷 중독에 대해 살펴봤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유형별로 어떤 애착 유형을 보이는지, 애착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를테면, 불안정 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현실에서 부적절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성인 사이트의 채팅방 이용하거나 가상관계에 심취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 중독 하위 유형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 애착, 정서조절능력, 인터넷 중독 척도는 선행 연구를 통해 검증된 척도이나 자기보고식 검사이

기 때문에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인터넷 중독의 경우, 실제로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이 자신의 중독적 인터넷 사용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과소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높은 인터넷 중독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 집단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치료적 개입에서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줌으로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References

- Ahn H. Y.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chool life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Korea.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
- Hopley, A. A., & Nicki, R. M. (2010). Predictive factors of excessive online poker playing.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3, 379-385.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3.
- Bae B. R. (200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17.0: Principles and practice*. Seoul: Chungram.
- Borelli, J. L., Crowley, M. J., David, D. H., Sbarra, D. A., Anderson, G. M., & Mayes, L. C. (2010). Attachment and emotion in school-aged children. *Emotion*, 10, 475-485.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Choi, M. G. (2003). *A study on adolescents' attachment, soothing ability,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nternet addi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Goldberg, I. (1996). Internet addiction disorder. Retrieved November, 24, 2004 from <http://www.rider.edu/~suler/psycyber/supportgp.html>.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Gottman, J. M., & Katz, L. F.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73-381.
- Hong, S. H.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 161-177.
- Hong, S. H., Park, M. S., Kim, W. J. (2007). Tes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s betwee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and communication with parents: Multigroup

- analysis across gender.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1, 129-143.
- Hwang, C. S. (2006). Parent and peer attachments of early adolescents and the transition of attachment functions. *Studies on Korean Youth*, 17, 201-225.
- Jo, M. J. (2013). The effects of depression, anxiety, and parents' laissez-faire parenting on internet addiction: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Korea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Therapy*, 5, 5-30.
- Jo, S. H. (2004).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nsity and emotional clarity on self-destructive behaviors : Focused on binge eating and addictive internet 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D. W. (2010). *The relation of attachment and Internet intoxication of you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 Jung, K. S. (2005). *Relationship of computer game intoxication and computer game use quality, personnel relationship propens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elementary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Keum, M. J., Jung, S. H., & Shin, D. K. (2015). Research trend of internet addiction in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ociation.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ference Workbook*, 8, 308.
- Kim, E. J., Lee, S. Y., & Oh, S. K. (2003). The validation of Korean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scale(K-AIA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 125-139.
- Kim, H. K. (2005).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attachment on their human relationship and internet addi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O. (2015). *The effect of experiential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emotion awareness, emotion regulation, and motives for the change of the internet addicted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S. (2012). The study on internet addict of juvenile and the solution.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2, 73-86.
- Kim, H. S., Choi, Y. H., & Yoo, S. J. (2010). The study on the relations among ego-identity, stress, and internet addiction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9, 173-185.
- Kim, K. H. (1998). *Developm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rating scale for preschool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U. C., Park, Y. S., Tak, S. Y., Kim, J. H., & Oh, M. S. (2012). Analysis of the self-concept in the cyberspace, self-efficacy, relationship with friends, subjective well-being and academic grade: Comparison of adolescents who are addicted to Internet to non-addicted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19, 285-318.
- Kim, Y. H., Son, H. M., Yang, Y. O., Cho, Y. R., & Lee, N. Y. (2007). Relation between internet game addict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student's perception of parent-

- child attach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3, 383-389.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and Promotion. (2014). *A survey on internet addiction*. Seoul: 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and Promotion.
- Larson, R. W., Richards, M. H., Moneta, G., Holmbeck, G., & Duckett, E. (1996). Changes in adolescents' daily interactions with their families from ages 10 to 18: Disengagement and transform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2, 744-754.
- Lee, E. B., & Kim, J. K. (2013). The effects of gestalt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GRIP) on emotional regulation difficulties and behavior problems of school maladaptive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Gestalt Therapy*, 3, 1-19.
- Lee, G. S., & Jeong, N. U. (2003). The difference of affect regulation style and effectiveness according to adult attachm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 779-793.
- Lee, H. D., & Hong, H. Y.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internet addi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loneline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 271-294.
- Lee, J. M., & Kim, C. D. (2013). The effects of experiential interventions using empty-chair dialogue after social exclus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 83-96.
- Lee, J. Y., & Chun, J. S. (2015). The effect of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on academic adjustment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Youth Welfare*, 17, 287-303.
- Lee, K. S., Lee, J. Y., & Jang, J. Y. (2013). The mediating effect of fear of intimacy between attachment with parents and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2, 91-106.
- Lee, M. J. (2009). The influence of face to face communication variables and self traits o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s - focusing on communication unwillingness, family communication pattern, self efficacy and ego resilienc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1, 99-127.
- Lee, M. S., Oh, E. Y., Cho, S. M., Hong, M. J., & Moon, J. S. (2001). An assessment of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problems related to depression, social anxiety and peer relationship.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0, 616-628.
- Mok, J. S. (2004). *The relationship of internet addiction to attachment, school adjustment and self-control among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Masan, Korea.
- No, J. J. (2009). *Influence of parents-child attachment and family cohesion on adolescents's game addi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Nonsan, Korea.
- Ok, J.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ompetence*.

-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 University, Seoul, Korea.
- Oh, J. H. (2010). *The effects of gestalt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GRIP) on depression, emotion regula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depressive middle-school gir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579-600.
- Ryu, E. J., Choi, K. S., Seo, J. S., & Nam, B. W. (2004). The relationships of Internet addicti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Taeban Kanbo Hakboe Chbi, 34*, 102-110.
- Son, K. S. (2007). *The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effect of the emotion regulation competence improving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group home childre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 University, Seoul, Korea.
- Sroufe, L. A., & Waters, E. (1977).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construct. *Child Development, 48*, 1184-1199.
- Tice, D. M., Bratslavsky, E., & Baumeister, R. F. (2001). Emotional distress regulation takes precedence over impulse control: If you feel bad, do i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53-67.
- Yoo, S. H.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type and addictive tendency of adult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 University, Seoul, Korea.
-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 Psychology Behavior, 1*, 237-244.

Received March 3, 2015

Revised February 7, 2016

Accepted February 11, 2016



## 청소년의 부모 애착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김 서 현

용인정신병원

김 정 규

성신여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 애착, 정서조절능력, 인터넷 중독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부모 애착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서울 및 경기 소재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422명을 대상으로 애착 척도, 인터넷 중독 척도, 정서조절능력 척도가 포함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 애착은 정서조절능력과 정적 상관을 가지는 반면 인터넷 중독과는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능력과 인터넷 중독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매개 효과 검증 결과, 정서조절능력이 부모애착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서조절능력이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적 개입에서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평가와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주요어: 애착, 인터넷 중독 성향, 정서 조절, 청소년, 매개효과